“고충 무료상담 해 드려요”

광주 서부경찰서 불자회 김창배 회장(오른쪽)과 황선일 경장(왼쪽)이 불자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광주서부서 불자회 법률상담 봉사
월 2회 무각사, 혜룡사에서 진행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전세금 일부를 몇 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려워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수지행 보살. 가족의 생계가 달린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이번엔 법에 의지키로 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찾아 고급 법률서비스를 받기엔 금액면에서 엄두가 나지 않아 망설이던 중, 사찰에서 생활민원상담을 해준다기에 토요일인 2월21일 광주 무등산 혜룡사(주지 혜우)를 찾았다.

이날 혜룡사에서는 광주 서부경찰서 불자회(회장 김창배 · 이하 서불회)가 서민들의 생활민원 고충처리상담의 일환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펼치고 있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간단한 법률이나 민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돈 없고 힘없는 이들에게 가까운 경찰, 나아가서 함께하는 불자가 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서불회 2대 회장직을 수락한 김창배 회장은 “대부분 문제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한다”며 “어쩔 수 없이 사회법에 의지하지만 그래도 불법(佛法)에 의지해 문제를 풀어가도록 상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불회가 펼치는 무료법률상담에는 차마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가정폭력에서 차용,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담에 나선 불자회 회원들은 경찰서 조사계, 형사계 등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사관들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든 풀어 가는데 있어 막힘이 없다.

“상담을 통해 나도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법문으로만 만나던 불교에서 나누는 삶을 접하면서 이제 ‘진짜 불자’라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이날 상담에 임한 황선일 경장(수사과 조사계)은 수지행 보살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민사로 제소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서류 작성을 도왔다.

서불회 생활민원 고충처리상담은 월 2회 광주 무각사(둘째 토요일)와 혜룡사(셋째 토요일)에서 진행되고 있다.

광주=이준엽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문학 통한 불법 홍포 열심

서울 삼선동 정각사 한 정덕행 보살

관세음보살상 옆에 선 한 정덕행 보살. 두 보살의 미소가 꼭 닮았다.

서울 삼선동 정각사에는 ‘오래된 보살’들이 많다. 제각각 다른 이유로 정각사와 인연을 맺게 됐지만, 공통의 보살심으로 수십 년 동안 한마음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가진 것도 하는 일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은 정각사를 매개로 참보살이 됐다.

그 다짐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보살이 있다. 한 정덕행(74 · 수필가)보살이 바로 그 주인공. 40년 전부터 정각사 법회에 참여하면서 부처님 마음을 키워왔다. 특히 한보살은 ‘자신’의 허물을 넘어 남의 죄와 업장까지 참회하는 기도,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통해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중생의 모든 업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니 온갖 걱정과 분노로부터 초연할 수 있었다.

“20년 전 갑작스레 쓰러져 반신불수가 돼버린 남편을 돌보면서 마음을 다지게 됐지요. 언제부턴가 남편의 병수발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 마음이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들에게로 뻗치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를 환희심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어서일까. 정각사가 1962년부터 벌였던 ‘신행회보(신행불교)’ 발간작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사찰 문서포교에 큰 힘을 싣게 됐다. 최초로 문서포교를 시작한 정각사의 뜻을 신실한 마음으로 이어가며 부처님 법을 널리 알렸다. 법음을 전파하는데 있어 등단의 이력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가르침을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일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한 보살은 최근 새로운 발심을 하게 됐다. 문학이라는 방편을 통해 불법을 보다 깊고 넓게 홍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 그래서 불교 교리공부는 물론 맹자를 비롯한 동양고전 공부 등에 여념이 없다. 또한 불상의 원류를 찾아 간다라 지역으로 답사를 떠날 정도로 불교미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대단하다. 그러한 각고의 노력이 한자루 붓끝에서 가만히 피어오를 날을 기다려 본다.

강신재 기자

추천의 말

광우스님 정각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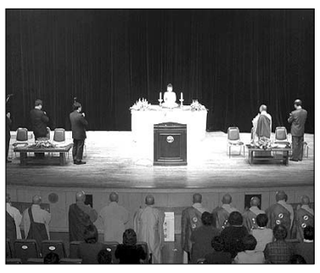
‘正信正行’ 품고 사는 신도

한 정덕행 보살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정신정행(正信正行)의 뜻을 오롯이 품고 있는 보살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면서도 상(相)을 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 정각사 신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문학, 미술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덕행 보살은 우리 정각사의 보배입니다.

전남 신행단체 한마음으로 뭉쳤다

동부불자회, 순천운불련 법회
헌혈, 파병철회 108배 정진



전남 동부지역 불자 연합회(회장 최경태) 창립 1주년법회가 2월20일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봉행됐다.

순천운전불자회(회장 김종대) 창립을 겸해 열릴 이날 법회(사진)에는 화엄사 선원장 현산 스님, 순천사암연 회장 일우 스님 등 순천지역 스님과 조충훈 순천시장,이홍제 순천시의장 등 지역 기관장, 재가신도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현산 스님은 법어에서 “근본을 깨닫고자 한다면 본래마음을 깨쳐야한다”며 “마음의 빛을 안으로 비춰 바탕을 깨달을 뿐 끄트머리를 쫓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연합회 최경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남동부불자회는 전국에서 유일한 재가연합단체로 모든 신행단체가 한마음으로 뭉쳐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순천은 승보종찰 송광사와 태고총림 선암사가 자리한 불교 중심지로 지역의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온 불자연합회의 노고에 시민들과 함께 치하한다”고 축하했다.

이날 동부불자연합회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생명나눔 일환으로 광주혈액원과 함께 법회장 앞에서 헌혈행사를 펼쳤다.

또한 순천불교청년회는 이라크파병 반대를 위한 사진전시회를 열고 법회후 시민들을 향해 파병철회를 기원하는 108배 정진을 했다.

전남동부지역 불자연합회는 2002년 2월 15일 창립후 각 사암 신도회와 신행단체 등 3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2월26일 열린 월정사 주지 진산식에서 신임주지 정념스님이 前 주지 현해스님으로부터 주지 직인을 받고 있다.

진산식서 어린이돕기 성금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는 2월 26일 대적광전에서 신임 주지 정념 스님의 진산식을 가졌다. 진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 · 활안 · 천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현해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신도 등 4천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정념 스님은 축하화환을 받지 않는 대신 지역의 백혈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성금을 모금, 4천3백만원을 전달했다.

정념 스님은 취임사에서 “한암, 탄허, 만화 스님의 선 가풍을 선양하고, 교구종회를 육화로 운영하여 대중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불자들에게 문화체험과 각종 수련회를 실시해 자비구현을 하겠다”고 밝혔다.

평창=고영배 기자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봉 약천사 양력 3월 8일 행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태중아기 지장보살님

● 일 시 : 2004년 3월 8일 월요일 오전11시 (음, 2월18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3월 8일 (음, 2월18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4월19일 (음, 3월 1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회당 별도
※ 위패비, 아기옷 :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金仙 양생기공

“불자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성명쌍수의 비법으로 지켜온 금선학회에서 제2기 백일 축기반과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육체에는 육체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무시한 체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며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깨달음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에서 얻을 수 있다....” (불교성전 발췌)

백일기도, 천일기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불자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성명쌍수의 비법으로 지켜온 금선학회에서 제2기 백일 축기반과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1. 제2기 백일 축기반 모집안내

모집시기	2004년 2월 한달간
수련일정	2004년 3월 1일 - 6월 8일까지 월-금 20:00-22:00
수련장소	세계금선학회 본원 (사당역 11번 출구 150m. 은혜빌딩 6층)
수련내용	1. 금선공법 : 금선오행 기공, 금선 기치료법, 금선관법, 명상, 묘유주천, 소주천, 대주천 2. 금선 양생법 : 영보필법, 수도전지, 대성첩경 3. 수진도 내경도
회 비	월 1,000,000원

2. 신입회원 수시접수
3. 수련효과
중풍, 신경통, 디스크, 관절염, 요통, 오십견, 비만, 변비, 건망증, 불면증, 노이로제, 두통, 이명, 각종 부인병, 간장질환, 심장질환, 위장병, 폐질환, 신장질환 등 치유와 예방

금선학회가 궁금하세요? 인터넷 주소창에 “금선학회.net”만 치세요.

세 계 金 仙 학 회

교육문의 : 02)512-7057. 7233